RaonAtti

2015 june report

Shuvorattri

길태오 Shetu 최현희 Khushi 정기용 Shuvro 김혜련 Tuli

목차

1.월간일정
2.팀원소개
3.활동내용
4.우리 이렇게 살아요
5.소감

월간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팀 회의 (역할, 예산점검)	2 Movie club	3 정기회의 환경의 날 보트만들기	4 다하파라 수업	5 환경의 날 행사 참여	6 YMCA Birthday (경기장 설치)
7 다하파라 피크닉 준비 Korea club	8 다하파라 수업 다하파라 책장전달 및 피크닉 준비	9 다하파라 피크닉 Movie club	10 정기회의	11 보고서 작성	12 NCYB 니푼 총장님과의 만남	13 정기회의 다카여행 계획
14 다카여행 계획	15	16	17	18	19	20
21	22 팀원들과 나눔	23 창고물품정리 Movie club	24 정기회의 도서관 페인팅 작업	25 다하파라 수업 도서관 페인팅 작업	26 Off day	27 정기회의 도서관 페인팅 작업
28 도서관 페인팅 작업	29 도서관 청소 월말회의	30 다하파라수업 Movie club				

Dhaka Travel

Shetu의 하루

Shetu의 일상을 들여다 본 팀원들의 한마디!

: 잠 좀 줄이시오! 바담(땅콩) 좀 줄이시오!
Y에 늦지마!

: 작작 먹으시오~

: 지각비 내던가
바담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던데 띠가체…?(괜찮아…?)

: 바담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Khushi의 하루

Khushi의 일상을 들여다 본 팀원들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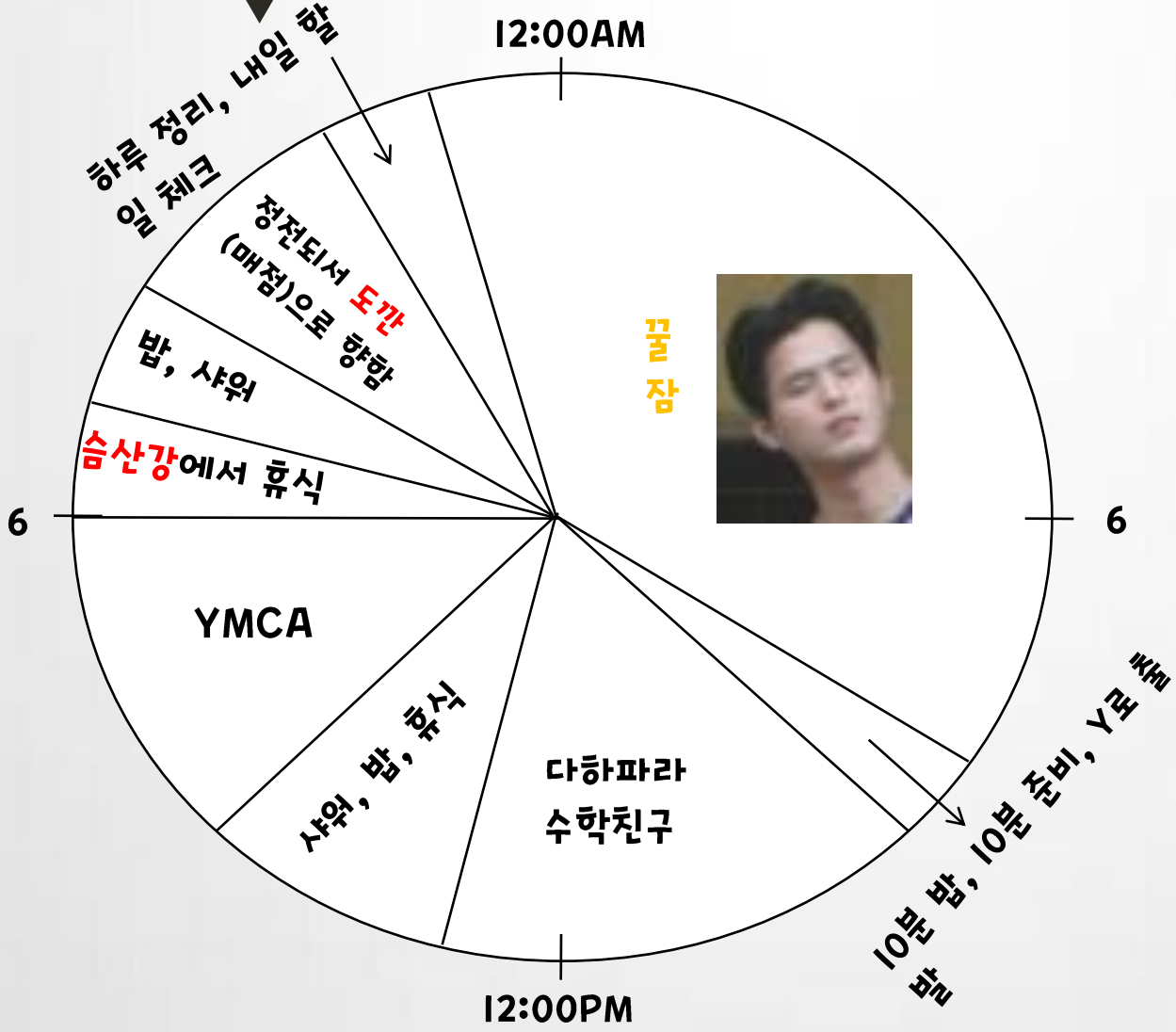
: 그만 아파. Y에 늦지마.

: 우리 이제 다하파라 3번 남았어 힘내!
맥스 베이비시터 쿠쉬~ 아직도 맥스가 언니 바지에 쉬싸…?

: Y에 늦지마. 그리고 맥스는 내꺼다.
(나 알지? 아기사냥꾼)

: 하지만 이제 맥스가 떠난다는거ㅠ.ㅠ
이 슬픔을 어찌하지…?ㅠㅠ

Shuvro의 하루



Khushi의 일상을 들여다 본 팀원들의 한마디!

: 매일 슴산강에서 고독 씹는다며..?
우리 베텔(슈브로 조카) 좀 많이 예뻐해줘

: 베텔한테 좀 잘해줘…
우리한테 관심 좀 가지고

: 집에 좀 들어가라고 ㅋ ㅋ ㅋ

: 제발 베텔 좀 데려가.

Tuli의 하루

Tuli의 일상을 들여다 본 팀원들의 한마디!

: 아침은 조금만. 더 이상 찌지마

: 운동 꾸준히 하는구먼! 뚤리는 우리 중에 제일 부지럼쟁이

: 개 좀 데리고 오지마

: Youth들한테 뚱뚱하단 소리 좀 그만 듣고 싶다.
개랑 놀러나 가야지~

“활동내용”

다하파라 (Non Formal Primary Education)

다하파라(NFPE) 학교 수업 진행: 매주 월,화,목 주 3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는 길이 험난한 다하파라 스쿨, 이번 달은 다카여행을 다녀오고 우기 탓에 수업을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기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팀원들 수업 방식도 각각 다양한데 어떤 팀원은 수업이라기 보다는 아이들과 앉아 수다만 떨고 어떤 팀원은 만들어주기만 하다가 돌아오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Youth club

매주 3회 유스클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Music club, 토요일 Art club, 일요일 Korea club 을 진행하고있는데 유스클럽 참여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무비클럽을 하는 날이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어느새 홀룸이 가득 차곤 합니다. 유스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은 유스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

YMCA Birthday _ football 매치

15.06.06

비리시리 YMCA Birthday를 맞아 YMCA는 축구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축구장은 당연히 스스로 설치해야겠지요? 라온아띠는 유스들과 함께 땡볕에서 땅을 고르고 골대를 설치하는 준비과정과 경기 역시 슈브로와 셰뚜가 전반전, 후반전을 나눠 뛰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뛴 탓인지 슈브로와 셰뚜팀이 이겼답니다. 축구경기가 끝나고 지친 상태였지만 다시 필드를 정리해야겠지요? 유스들과 함께 필드를 정리한 뒤에는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환경의 날

15.06.05

환경의 날을 맞아 비리시리 및 두르가푸르에 있는 NGO기관들이 모여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NGO대표들이 돌아가며 환경에 대한 의무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어떤 환경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라온아띠도 YMCA, YWCM와 함께 참여했답니다. ☺

(350PPM 캠페인은 다음달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다하파라_피크닉

15.06.09
다하파라 파크닉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간식으로 시작된 피크닉은 체조 후에 청팀 백팀으로 나눠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림보, 피구, 줄달리기, 보물찾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끝이 났는데요. (역시 결과는 2대2 무승부) 피크닉 도중에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났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더 많은 게임을 준비해오지 못한게 아쉽기도 했습니다. ☺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지쳤다는..,)

Library

슈보라뜨리팀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Library만들기는 현재 Youth room을 이용할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사전조사와 유스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들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유스룸 청소와 창고 정리를 하고 Y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 아저씨에게 직접 배운 솜씨로 페인트칠을 했는데요. (달라진 모습은 다음 달 보고서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Dhaka Travel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주일 간의 다카(방글라데시 수도)여행. 중간평가가 끝이 나고 앞으로의 생활과 활동고민을 거듭하던 우리들에게 무언가 색다른 것이 필요했다. 여행을 떠났던 그 시점, 모두가 한국음식이 그립고 활동에 치여 자유를 만끽하고 싶던 때였다. 무엇보다 아무런 걱정 없이 팀원들과 신나게 놀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획한 여행테마는 'Healing!'

일상을 잠시 벗어나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슈보라뜨리팀의 Healing story! 다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머무는 비리시리에서 수도다카까지는 차로 약 5시간의 거리! 1일차엔 숙소에 도착해 휴식을 가졌으며, 2일 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카여행이 시작되었다.

2일차엔 NCYB 니푼 총장님을 만나 비자를 연장하고 저녁엔 총장님의 장인어른(방글라데시 문화부장관)집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Dhaka Travel

3일차, 8:00AM 영일이 형이 구워준 맛있는 토스트로 간단히 배를 채우면 우리의 하루가 시작된다. 릭샤를 타고 도심 한가운데로 이동해 쇼핑센터를 구경하고 곧이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이른바 '비리시리 또라이 3인방'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수다를 떨었답니다.
저녁은 터키음식점에서 만찬을~♥

4일차 역시 영일이 형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한다.☺ 드디어 그리웠던 한식을 만나러 가는 날! 닭도리탕, 불고기, 김치찌개…♥ 식사를 마친 후엔 한인마트까지! 잠시나마 그리웠던 한국을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던 Edilpur의 인연. Zoin까지~! 반가웠어 조인!☺

Dhaka Travel

5일차, 방글라데시에서의 두 번째 만남, 반가운 얼굴인 10기 슈보단원을 만났습니다. 함께 즐거운 식사를 마친 후엔 근처 한인교회를 방문해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일차, 굴산에서 간단히 쇼핑을 한 후, 마지막 한국 음식을 만나러 한인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부른 식사를 마친 후, folk international를 방문에 각자 한국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선물할 예쁜 방글라데시 아이템들을 구입했답니다. 6일 차를 끝으로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친 우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치맥! ♥

Dhaka Travel

이렇게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다카에서의 여정은 모두 끝이 났다. 그리웠던 한식과 평소 보고 싶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무엇보다 팀원들과 신나게 놀며 확실히 재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다.
인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행렬,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경적소리 비리시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그것은 한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비리시리에 있음에 감사했고, 남은 한달 함께 잘 지내보자는 다짐을 안고 비리시리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못다한 이야기가 많아 '사진 더 보기'에서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브로에게 라온아띠란?

저는 라온아띠를 특이한▪특별한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냐' 인데 라온아띠를 통해서 알게 된 팀원들과 함께하는 5개월의 여행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다투는 일이 허다한데 만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팀원들과 한국인이라곤 우리 4명뿐인 이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과했는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면, 라온아띠 프로그램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제자원활동의 이해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이 다른 대학생봉사활동들과 비슷하게 5개월의 활동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만 끝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4개월을 보내는 시간 동안 다른 무엇보다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관계지향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에게 관계는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관계에 대해서는 부딪히기 보다는 피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저에게 "팀원들과 많이 싸워라, 잘 싸우고 잘 화해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듣다 보니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웠던 것도 부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희에게 빌려본 '철학자의 여행법'이라는 책을 읽고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하기보다 책 내용 좀 담아볼께요. 한번 읽어보세용.

'우정을 실현하다.' (P.60)

여행으로 인한 피로감은 진심을 왜곡하기도 한다. 여행하는 장소나 상황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걷고, 또 걷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하고, 너무 많이 마시게 되거나 충분히 마시지 못하게 되고, 아주 일찍 일어나야 하거나 늦게 잠들어야 하는 상황들은 우리의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피곤해질수록, 혹은 예민해질수록 우리의 감정은 더욱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우리의 육체는 마치 약간의 흔들림이라도 감지해내려는 지진계처럼 예민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정은 더욱 완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시간,공간,일정을 함께 쓰는 동안 우정은 더욱 견고해진다. 친구들끼리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힘은 다른 한 사람의 나약함을 보완해주고, 한 사람의 피로는 다른 사람의 지구력을 강화시켜주고, 한 사람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의 풍족함으로 채워진다.

[출처 : 철학자의 여행법 (미셸옹프레 지음, 강현주 옮김) 출판사 : 세상의 모든 길들]

‘순수함을 되찾다.’ (P.72)

절대적인 진리도 상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운명을 평가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이나 형이상학적 기준, 존재론적 기준은 없다.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또 다른 장소에 대한 해석을 강요하는 비교수단도 없으며, 마치 U자관과 같은 방식으로 그 지방 특유의 액체로 가득 차게 내버려두는 의지도 없다.

‘자신이 속한 문화’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현실을 보려는 안타까운 경향은 선교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머나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성직자들은 그들이 도착하는 장소를 기독교관점에서 이해한다.

여행은 선교사정신이나 편협한 유럽중심적 민족주의 정신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폭 넓은 민족학적 혹은 세계주의적 의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관광객은 비교하고 여행자는 분석한다. 관광객은 다른 문명의 문턱에 머무르면서 단지 문화를 스쳐 지나가고 그 거품만을 맛보면서 멀리 떨어진 채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만족한다. 여전히 그 자신의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구경꾼으로서 말이다. 여행자는 웃고 울고 판단하고 자책하고 용서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은 채, 언제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쓴다. 관광객은 비교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해부학자라고 할 수 있다.

▪▪▪ 순수함이란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들은 것을 잊어버릴 것을 전제로 한다. 단지 부정하고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의 볼거리와 자아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을 모두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과 관련된 글을 쓰는 거의 모든 작가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현지민박을 하면서 원주민의 삶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투자를 하는 여행의 장점을 떠벌리면서, 그 지역에 완전히 동화되는 여행을 찬양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에서 그런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 지역을 이해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진정한 풍미를 맛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조차 접근하기 힘든 이러한 문화의 내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하지만 마치 현지인처럼 이렇게 개종을 한다고 해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원초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벽에 둘러싸인 채 출생지, 조국, 모국어의 구속을 받으며 커왔다. 한 나라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때로는 순수한 주체성에서 비롯된 짧지만 강력하고 비이성적이고 본능적인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성주의자들은 단지 인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한 장소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여행자는 아무리 긴 시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곳의 영적인 거주민으로 산다고 해도 절대로 원주민의 뿌리깊은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 없다.

‘ 나 자신을 만나다.’ (P.101)

자아, 그 것은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아니, 아주 조금은 있을지도 모른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어떤 계기나 기회, 명분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지 자신을 발견하거나 혹은 재발견하고 싶다는 아주 모호한 의도 속에서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 떠나게 된다.

여행은 고대철학자들이 평소에 했던 훈련과 관련이 있는, 자아에 대한 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있는가? 내가 만약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단기준이나 사전정보를 무시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거나 발견할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불안한 환경 속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혹은 사회나 공동체 부족으로부터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순간이 되었을 때 나의 정체성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 존재감 중 어떤 부분이 유지될까? 관습이나 음모가 없는 현실 앞에서 내인생의 본질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은 것들이 우리를 보존하는 한, 세상을 넓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서구의 고전철학자들은 대부분 이 주제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아를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동행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길을 나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있던 것들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쯤이면, 열배 정도 더 커져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있던 고통과 상처, 권대와 번민, 아픔과 불행, 슬픔과 우울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점점 더 확대된다. 세계일주 여행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치유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정점에 달하게 되고, 우리는 그 깊은 구렁이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 여행은 우리에게 치료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단지 자신을 잊기 위해서 떠난다면 자신, 그것도 가장 직면하기 두려웠던 자신을 직면하게 될 위험이 더욱 크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그 빛깔이 흐려지지 않는다. 자아는 세상을 채색하고 형태를 부여한다. 현실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세상을 인식하려면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상을 투과시키는 이 필터는 표상을 구성하게 되고,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세상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에게서 비롯된다. 여행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작용을 각색하고, 새로운 연금술이 도래하는 것을 가속화시킨다.

비리시리 이야기_ 라마단

국민의 83%가 이슬람교인인 이 곳 방글라데시는 지금 라마단 기간!

라마단이란 아랍어로 '더운 달' 이라는 뜻으로, 이슬람력에서의 9번째 달을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9월을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기고, 이 한 달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단식합니다. 이 때문에 거리 곳곳의 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입구에 검은 천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금식을 중단합니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의 단축 등 스케줄 변동이 발생하며, 개인적으로.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시간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활동 고민 (마지막 기수)

마무리 잘하고 조용히 떠나고 싶어. 활동에서 보면 라온아띠가 해왔던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 예를들면 도서관 인테리어를 다하고 책과 책장을 다 마련해놓았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꾸준히 이용가능할까?라는 의문? 그래서인지 활동은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지.
그래도 무엇보다 정든 이 나라에 라온아띠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아쉬워.

나도 조용히 가고 싶어 나중에는 라온아띠를 그냥 좋았던 아이들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마치 우리가 오지 않았던 것 처럼.

아쉽다. 다음 기수가 없다는 게 슬프당…….

우리가 떠난 뒤에는 Ymca에 유스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나는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초반기수가 많이 부러웠어.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다는 처음이 나은 것 같아. 활동이든 유스들과의 관계든 같이 노는 것이든 말이지. 그냥 마지막은 뭔가 씁쓸해. 이별은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것 같아.

생활 고민 (홈스테이)

우리 호스트패밀리는 너무 좋아.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다, 디디가 너무 바빠서 집에 왔을 때 찬밥을 먹을 때가 종종 있는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날에는 기분이 좀 그럴 때가 있어

활동을 끝내면 팀원들이랑 자유롭게 놀고 싶거든 근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아빠가 맨날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와 그래서 다음엔 그냥 언니 집에서 잘려고~

나는 솔직히 요즘 한국의 가족들이 너무 보고싶다. 누군가와 맞춰나가며 같이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초반부터 방글라데시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맞춰야 하는 것에 점점 지쳤어. 내 주장도 했어야 하는데 나는 항상 참았거든. 우리 호스트 가족 개인의 성격의 일수도 있지만 나의 개인공간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

이달의 발로본두

Hendry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백만볼트! 진정한 까불이
매일 YMCA에 놀러 와 우리를 찾는 헨드리 Youth club 참석률 100%!!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며 한번 쯤 지칠 법도 하지만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웃으며 함께하는 긍정에너지가이 ~☺

이달의 발로본두

영일이형

다카여행으로 맺어진 우리의 인연
코리안 호스텔에서 첫 만남 후 5일 간 함께 지내며 다카여행을 즐겼답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카 구석구석 모두 안내해 준 친절한 형! 형이 없었으면 국제미아 됐을 수도…☺
라면도 잘 끓여, 연기도 잘해, 게임도 잘해, 못하는 게 뭐야? 아…벵골어..?♥

두 나라 보고 있나?!_ 필리핀

준성,찬수,지원,수정아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잘 지내고 있을꺼라 생각해 못 지내고 있으면 맥주나 마시고~
사진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머리는 왜 그렇게 잘랐대? 너무 멋있자나..하.하.하
다들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너무 너무 궁금해서 이런 코너를 진행하게 됐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
이제 시간이 없어.!!! 한달 밖에 남지 않았어,.! 정말 어떻게,,,.
얼른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아쉬워하는 팀원들도 있을텐데,, 뭐 어쩌나 후회는 남을테지만..,
그래도 남은 한 달 정말 잘 보내고 와.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뭐 할말이 없다. 다음 얘기는 한국에서 하자.
셰뚜 단원이 찬수 단원을 정말 그리워 하고 있단다.., 얼른 보자.!

〈출처 : 라온아띠 13기 필리핀팀 활동보고서〉

두 나라 보고 있나?!_ 태국

태국팀 잘 지내고 있어? 거기도 많이 덥지? 함께 이 무더위를 즐기며 남은 여름 각자의 나라에서 극~뽁해보자. ☺
태국팀 팀원들과 이야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터놓고 나눴나 모르겠네 우리 팀도 같은 고민이 있었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 남은 기간 팀원들과도 잘 지내길 바래☺
사실 우린 태국팀 보고서 보자마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다카여행 떠나서 떡볶이를 제일 먼저 찾았어… 후식으론 더운 날씨에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땡겨 카페로 향했지… 이 녀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태국팀이 조금 부럽기도..?☺
이제 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무리 잘하고 잘 지내고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Ps. 지원아 덕.깨.우 이름 너무 치명적이야

〈출처:라온아띠 13기 태국팀 3,4월 활동보고서〉

“소감”

셰뚜_태오

6월도 갔다. 아니 사실 7월도 절반이 갔다. 3월부터 난 이곳에서 뭘 했을까? 돌이켜보면 참 시간이 잘 갔을 때도 있었고, 반대로 정말 심하게 시간이 안 가던 때도 있었다. 처음 라온아띠가 되고 별 생각 없이 “5개월 정도야 더 길게도 있을 수 있지” 라고 했던 것이 지나고보니 참 우스운 생각이었다 싶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5개월 동안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맛만 조금 본 국제 자원 활동을 하겠다고 온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참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 난 정말 무언가를 배우고 해볼려고 온 것일까? 아니면 그냥 해외에서 살고 싶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여기 온 것일까? 사실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내게 중요하지는 않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들은 나에게 의미 있었으니 말이다.

그냥 지금 내 생각은 마지막 기수로써의 마무리를 잘하고 지금까지 놓여진 이 돌다리에 이끼만 끼지 않게 잘 관리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 때 지긋지긋했던 한국 생활이 조금씩 그립다.

뚤리_혜련

6월도 가고 7월도 절반이 지났다. 약 이십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 동안 쉴 틈 없이 달려 온 기분이다. 얼마 전, 우리의 마지막 스케줄을 짜고 보니 이제 공식적인 스케줄이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참 많이 그리고 빠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이제야 다하파라 아이들이 예뻐보이고, 꼴 보기도 싫었던 팀원들이랑도 잘 지내보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이 많이 그리웠는데 떠날 때가 다가오니 많이 아쉽다. 하루는 눈을 떴는데 우리 집 내방이고, 창문으로 바라보는 밖의 모습은 소가 풀을 뜯고 있는 푸른 들판이 아닌 빨간 벽돌의 이층집을 상상해보았다. 갑자기 그것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만큼 난 지금 이곳에 깊게 물들어있다.

여태껏 나에게 기분 좋은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머문 자리, 혹은 누군가를 떠난다는 것은 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곳의 생활을 하나씩 마무리 짓자니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에 혼란스럽다.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간다. 지금까지 난 이 곳에 있음에 늘 감사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중한 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 지금은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 한번 더 웃고, 한번 더 묻고, 행동하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적응하고 싶다. 6월 말, 팀원들과 편지를 주고 받았다. 우린 서로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사실 읽기 두려웠는데 읽고 나니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지금도 편지는 내 배게 옆에 있다. 받은 편지를 읽으면 팀원들이 갑자기 좋아진다ㅋㅋ 그래서 남은 기간 잘 지내보려고 한번 씩 읽어보는데..ㅎ 잘 지냅시당! 우리존재 화이팅~ ☺

슈브로_기용

앞으로 한달.

쿠쉬_현희

3월부터 매일 일기를 썼다. 가끔 밀리기는 했어도 아주 소소한 이야기라도 조금씩 적었다. 그렇게 시작한 일기장이 이제 꽤 두터워진 것을 보면, 한국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다 추억으로 남게 되기 까지 지금 비리시리에서의 삶이 일상인 이상, 견디어 나가야 하는게 많다. 환경적인 것부터 사람 사이의 문제까지, 새로운 관계들과 익숙함 속의 불편함까지. 확실히 잠깐 머무는 것과 오랜 시간을 현지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다.
6월에 접어들자 나는 권태로움을 크게 느꼈다. 솔직히 이곳의 일상이 지겨웠다. 활동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밀린 빨래들을 모아 손빨래를 해놓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린다. 너무 더워서 팬 밑에 헥헥거리고 앉아있으면 정전이 된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어려움 등은 결국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쿠쉬_현희

또한 이토록 관계에 대해 지겹도록, 지독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었을까? 모두가 조화로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이런 물음들은 아직까지도 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소진, 관계의 어려움, 일상의 권태 속에서 점점 지쳐만 갔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편함은 늘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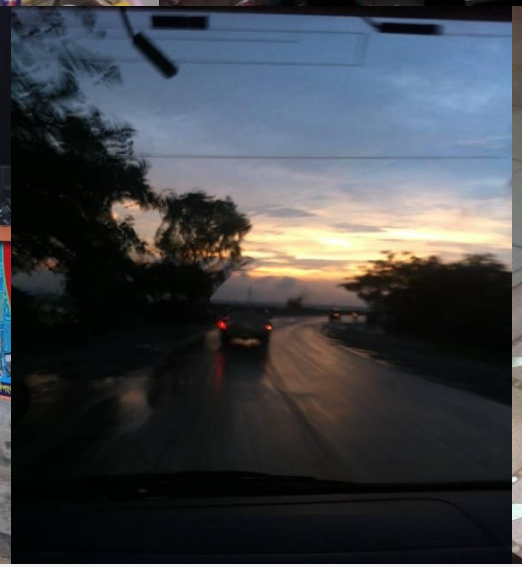
또한 시골에서 살다 보니 도시문명과 정말 많이 멀어졌다. 신기할 만큼 많은 것을 까먹었다. (한국어도 까먹는다..) 자꾸 단순해져만 간다. 그래서 잠 오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다. 내가 이토록 권태로움을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 가길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를 가기를 기다렸던 나날 같다. 분명 서울에 가면 비리시리가 그리워지겠지? 온통 푸르른 이곳이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항상 그리워 하며 지내야할까? 결국 “Glacias al lavida” ! 그저 나의 삶에 감사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나는 쿠쉬(행복)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정말 행복했는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사진 더 보기”

YMCA

UCC
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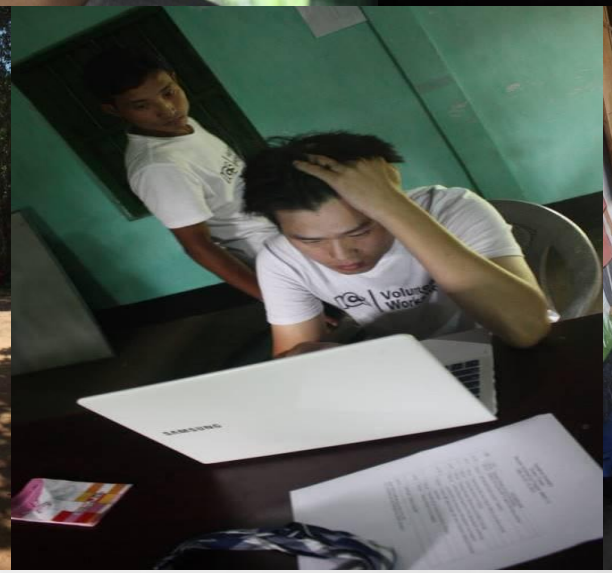
BIG BOSS IN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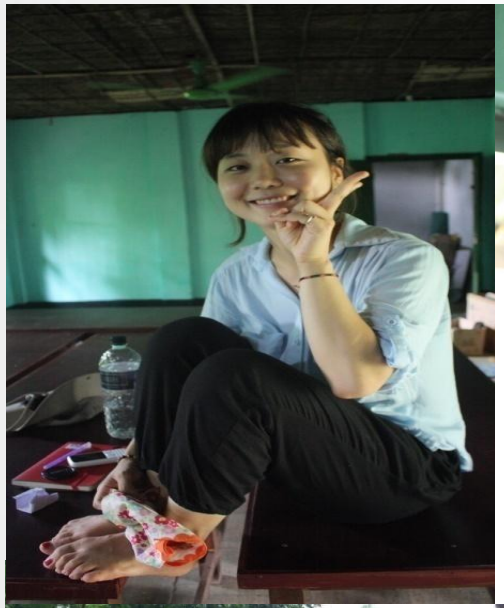


HUNTER

RaonAtti
friends
of
Asia

RaonAtti
friends
of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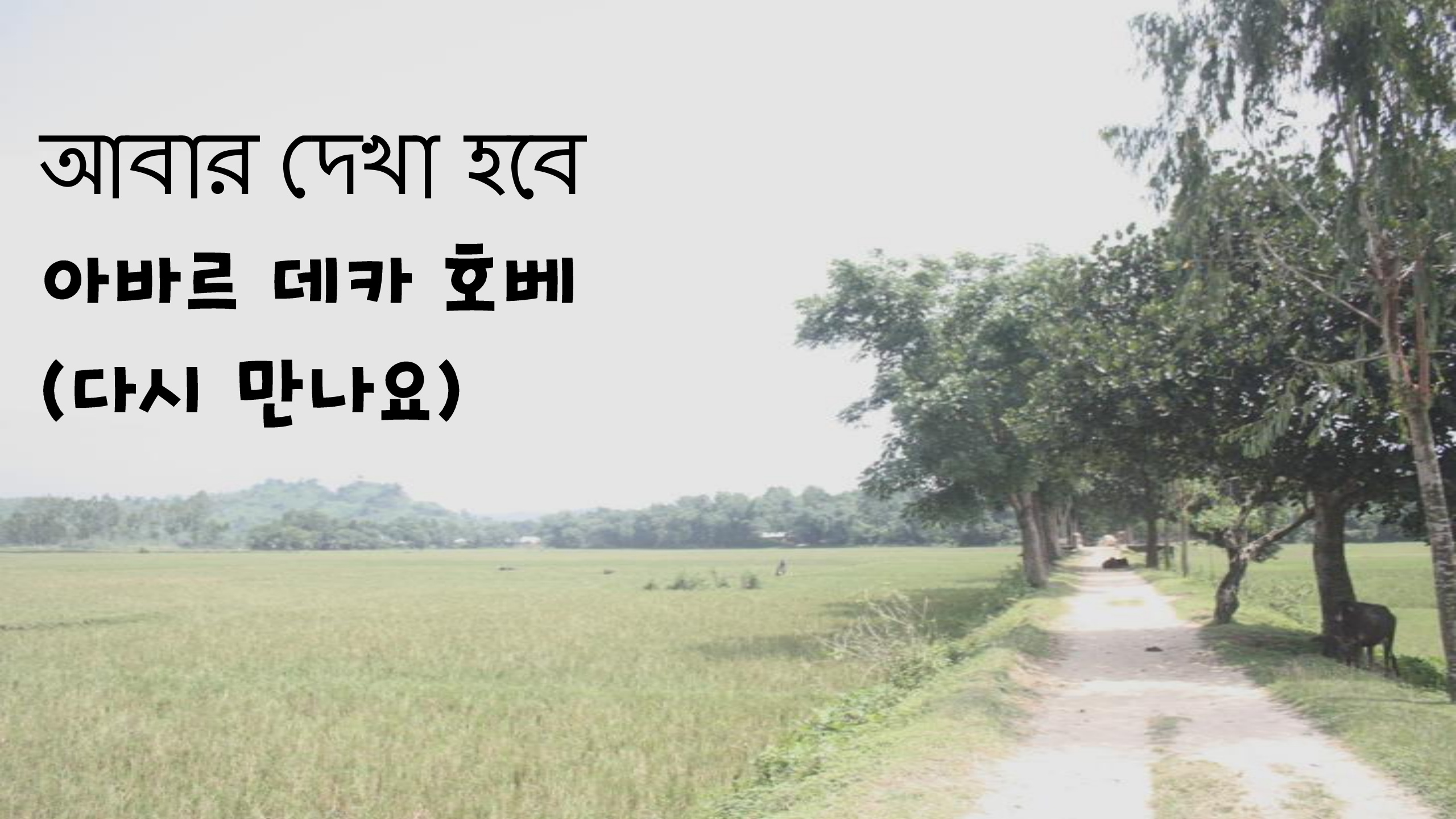
Canon

ESPRESSO
CAPPUCCINO
LATTE
MOCHA
COFFEE

이달의
벵골어
한마디

발로바시
사랑해♥

আবার দেখা হবে

아바르 데카 호베

(다시 만나요)